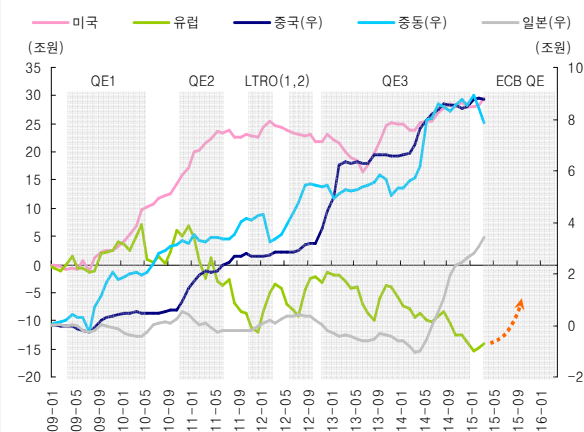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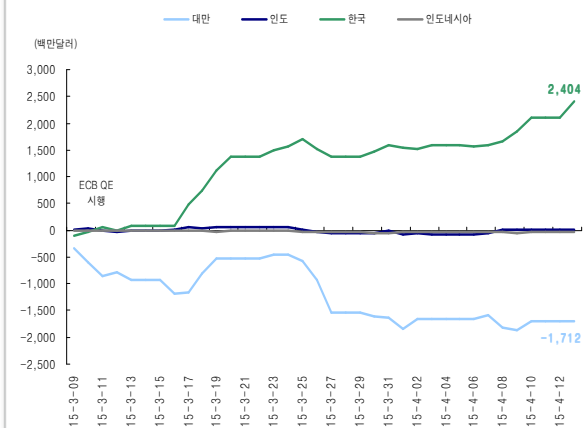


1. 풍부한 유동성 환경 지속. 미국+유럽+일본계자금 동반유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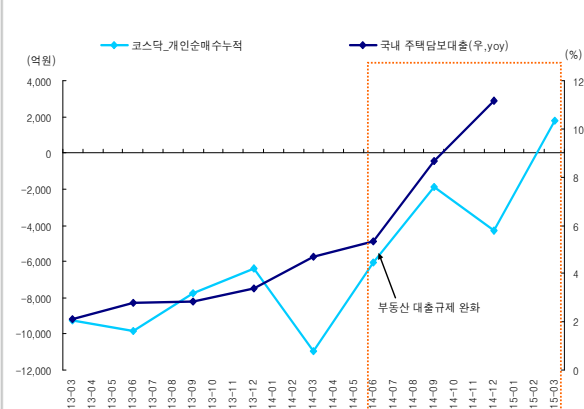
- 3월 한국증시, 달러캐리 + 엔캐리 + 유로캐리 자금 동반 순유입
- ECB, BOJ 등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연쇄적인 통화공급과 완화적 FOMC회의 결과 영향 등을 반영 풍부한 증시 유동성 환경 지속 중
- 3월 국적별 외국인 자금유입 동향
- 미국 +1조 2,650억 스위스 +4,920억 영국 +4,130억 일본 +3,320억 등

2. 신흥아시아 Top Pick은 여전히 한국



- 특히, ECB의 국제채매입이 시행된 이후(3/9), 신흥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한국증시로 자금유입이 집중되고 있음
- Buy Korea의 핵심배경 3가지
1) 유가 및 환율 수혜에 따른 실적회복 기대감
2) 달러유동성 랠리(연준 QE) 소외에 따른 가격매력
3) 연준 금리인상 국면에서 가장 건전한 대외안정성

3.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+ 금리인하. 국내유동성 증시공급



- 국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 기조는 국내자금의 증시유입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판단
- LTV, DTI 한도상향 등을 포함한 대출규제 완화 영향으로 국내 주택담보대출 급증
- 이는 국내 부동산 가격 뿐만 아니라 시차를 두고 증시 유동성 공급에도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
- 연초 이후, KOSDAQ의 강한 상승세 역시 대출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 조합에 따른 국내자금 유입 영향 (KOSDAQ +24.5% YTD)

4.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?

- 국내증시로 자금유입 흐름을 되돌릴 만한 뚜렷한 악재가 없는 상황 풍부한 해외+국내 유동성 배경 한국증시 강세 흐름 지속될 것
- 단기 주가급등과 1Q 어닝시즌 영향으로 변동성 확대 불가피하나, 조정은 주식비중 확대 기회로 활용
- 상반기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고, 멀티플이 저렴한 대형 Cyclical을 가장 선호
- KTB Overweight IT하드웨어, 증권, 정유, 화학 등

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해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. 본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경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나, 제공되는 정보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당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. 모든 투자의사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를 바라며,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분쟁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,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, 복제, 인용, 변형할 수 없습니다.